

## 한국 청년세대의 체제정당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그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안 혜 정      안 정 민      서 예 지      정 태 연<sup>†</sup>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한국의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체제정당화 현상의 내용과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초기 한국인 20명(평균 연령 28.1세, 남성 13명, 여성 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에 기초하여 참여자들이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인지·정서·행동적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경험에 따른 사회 시스템에 대한 표상 그리고 불일치를 해결하는 개인의 심리적 과정을 탐색하였다. 근거이론에 기초한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개념들은 의미 불일치 경험,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 정서적 결과 및 행동적 결과 등 네 영역으로 재구성 되었다. 의미 불일치를 야기하는 개인적 경험은 '자기가치감 상실',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 '현실 사회에 대한 실망'의 세 가지 형태로 범주화되었다. 이러한 불일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으로는 '정답 사회', '불신 사회', '스트레스 사회'의 세 개 범주가 도출 되었다.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표상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불일치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 억제'와 변화에 대한 불안과 무력감 등의 '부정적 예기 정서'가 나타났다.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 '개인적 통제감'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거나, '사회적 변화 회피와 정당화' 반응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체제정당화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지만, 그러한 반응을 야기하는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과 작동 양상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체제정당화 기제로서 정서조절 모델을 제안하면서, 체제정당화 연구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체제정당화 연구의 확장을 위하여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논의했다.

주요어 : 체제정당화, 정서조절 모델, 근거이론방법, 질적 연구, 청년보수화, 헬조선

<sup>†</sup> 교신저자: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32, E-mail: tjung@cau.ac.kr

‘한국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도 같다’는 헬(hell)조선 담론은 오늘날 청년 세대들에게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한때 인터넷에서 회자된 ‘헬조선 50관왕’이라는 글은 OECD 통계 지표를 통해 왜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옥과도 같은지를 설명한다(<오늘의 유머> 게시물, 2015. 4. 27.).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 출산율, 아동 삶의 만족도, 평균 수면시간, 행복지수, 기회 균등 지수에서 OECD 하위권에 머물렀고, 자살률, 노인 빈곤율, 연평균 근로시간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한겨레, 2015. 12. 13.). 특히, 청년 실업률은 2014년 10.9%, 2015년에는 11.0%로 점점 증가하더니 2016년 2월에는 12.5%로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통계청, 2016). OECD(2016)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교육비(6.7%), 보건 의료비(6.6%), 통신비(4.3%)가 높은 비중을 차지해 기본 생활비가 높다.

이러한 현실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년들은 대한민국을 지옥에 빗대어 ‘헬(hell) 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면서 헬조선 담론으로 발전했다. 관련 이슈를 다루는 심층보도나 관련 서적들(참고: 조한혜정 등, 2016; 김서영 등, 2016; 박순찬, 2015)도 상당수 등장하게 되면서, ‘헬조선’은 오늘날 청년세대의 현실을 설명하는 대표적 키워드로 다루어지고 있다. 헬조선 담론이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지옥과 같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부모의 재산의 크기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계급이 정해져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안정민, 2017). 헬조선 담론은 사회적 부정의에 대한 특정한 인식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박권일, 2016), 헬조선을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사회의 공고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대안이 없으므로, 죽창을 통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식의 만인 평등을 이룩하지는 극단적 주장

까지 서슴지 않는다(프리티안, 2015. 8. 6.).

헬조선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헬조선으로 표출된 사회적 불평등 및 부정의에 대한 청년 세대의 폭넓은 공감대와 이에 근거한 분노의 에너지가 사회 변화를 위한 청년 세대의 당사자적 실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기대감으로 나타났다(박권일, 2016). 그러나 텍스트 상으로 표출된 청년세대의 불만과 분노, 기성세대의 막연한 기대감과는 달리, 이러한 에너지가 사회의 변화를 위한 집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오늘날 청년들은 일자리, 주거문제, 사회-경제적 양극화, 민주주의의 후퇴 등 다수의 사안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회적 침묵을 지키고 있다(조한혜정 등, 2016). 오히려 다수의 사람들은 경쟁이 고도화된 사회를 비판하면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경쟁구조는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다(오찬호, 2013). 또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를 하고, 취업을 위한 영어와 자격증 취득에 비용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수저계급론에 분노하면서도 대학 서열에 따른 차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오찬호, 2013; 정정훈, 2016).

사람들은 왜 사회에 분노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를 바꾸는 노력 대신, 그에 순응함으로써 그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행동에 노력을 기울일까?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자칫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두 개의 현상이 공존하는 것에 주목했다. 특히 이러한 인식과 행동이 공존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헬조선 담론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학술적으로 이를 다루는 시도들이 있었지만(박권일, 2016, 이우창, 2016; 김애린 등, 2016; 정정훈, 2016; 이민영, 2016; 오찬호, 2013; 소영현, 2012; 조한혜정 등, 2016), 대부분은 세대론의 관점, 청년 세대의 정

치적 무기력, 탈정치화 및 보수화 등 사회학적 이슈로 다루어졌다. 특히 경쟁 지향적 사회구조,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신자유주의와 같은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보고, 사회구조적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인적 수준에서 웰조건의 사회적 인식과 경험의 작동방식을 분석하는 연구는 별로 없다. 특히 한국 사회의 사회적 조건과 맥락 안에서 청년 세대가 겪는 구체적인 심리적 경험을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다룬 적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인적 행동이 불일치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사회심리학적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희망하면서 그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행동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일종의 심리적 불일치 상황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우선 기존의 사회심리학적 지식이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설명 가능한 부분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심리적 불일치 경험과 이에 따른 인지적, 정서적 과정에 대한 질적 탐색을 통하여 불일치 경험의 내용과 작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시스템을 둘러싼 불일치의 심리적 역동을 사회심리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 불일치의 심리적 역동

다수의 사회심리학 이론들은 ‘불일치의 지각’을 일종의 동기적 긴장상태로 간주한다. 사람들은 태도와 행동 간의 불일치가 있을 때(인지 부조화 이론, Festinger, 1954), 목표하는 이상적 혹은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의 불일치가 있을 때(자기 불일치 이론 Higgins, 1989; 객관적 자기 의식 이론 Duval & Wicklund, 1972; 자기 통제

이론, Carver & Scheier, 1990), 이전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될 때(심리적 저항이론, Brehm, 1966), 기존의 의미체계와 불일치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하거나, 학습된 도식과 불일치한 정보가 주어질 때(의미 만들기 모델, Park & Folkman, 1997; 의미유지 모델, Heine, Proulx & Vohs, 2006) 심리적인 불편감, 즉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 각각의 이론들이 주목하는 현상의 측면이 다르긴 하지만, 불일치를 중심 개념으로 가지는 이론들은 불일치의 심리적 과정과 결과에 대해 대체로 공통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이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 차원에서의 불일치의 지각은 심리적 불편감을 야기하고, 이는 불일치를 줄여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 행동이나 사고를 작동시키는 동기적 힘을 가지고 있다(Heine et al., 2006).

이러한 불일치는 특정한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결과를 발생시킨다. 자기불일치 이론(Higgins, 1996)은 현재의 자기와 비교하여 이상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가 불일치 할 때 발생하는 정서가 각각 다르다고 제안한다. 현재의 자기가 이상적 자기와 불일치 할 때 실망, 좌절, 우울을 경험하는 반면, 당위적 자기와 불일치 할 때에는 두려움, 위협감, 공포 등의 정서를 경험한다. 이러한 불일치 인식과 정서의 발생은 동기적 행동과도 관련이 있는데, 당위적 자기와의 불일치는 사회적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욕망을 촉발하여 회피적 행동을 발생시킨다. Scheier와 Carver(1992)는 목표 수행의 관점에서 목표의 진척 정도와 참조 기준과의 비교에서 지각된 불일치가 접근적, 회피적 행동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서로 다른 정서를 발생시킨다고 보았다(Carver & Scheier, 2012).

불일치를 해결하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실증적 결과도 다수 보고되었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부조화에 따른 심리적 불편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법과 조건을 제시한다. 자신의 태도와 불일치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기존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부조화가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여김으로써(Simon, Greenberg & Brehm, 1995)

인지적으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의미 만들기 모델에서는, 심리적 불일치의 경험이 태도 수준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신념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 한다.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그 상황의 의미를 기존의 신념, 목표 등과 같은 의미 체계에 기반하여 해석하려 하고,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의미 만들기 과정을 통해 불일치를 줄이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우 상황의 의미를 기존의 신념 체계와 일치시키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신의 전반적인 신념 체계를 바꾸는 방식으로 불일치에 기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한다(Park & Folkman, 1997).

불일치를 주요 개념으로 삼는 기존의 사회심리학 이론들은 이의 정서적, 행동적, 인지적 결과에 대해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은 개인이 구성한 자기개념, 목표, 의미체계 등 자기(self)와 관련한 심리적 구성과 현실과의 불일치를 다룬다. 그렇다면, 사회에 대한 지각과 개인의 이익 및 행동에 불일치가 있을 때는 어떠한가?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이론적 모델로는 Jost와 Banaji(1994) 및 일군의 연구자들이 발전시켜온 체제정당화 이론이 있다.

#### 체제정당화 이론

체제정당화 이론은 현재의 상태를 야기하는 사회적 시스템에 분명한 단점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를 수용하고자 하는 동기적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적 관점이다(Jost & Troon, 2012). 이 이론을 주창한 Jost는 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의 집단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열등함을 내면화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높은 지위 집단에 호의적인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본 이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음을 밝힌바 있다(Jost & Banaji, 1994).

체제정당화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을 방어, 지지,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현재 상태를

합리화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가정한다(Jost & Banaji, 1994). 체제정당화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체제(system)란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와 사람들이 포섭되어 있는 크고 작은 사회적 시스템을 아우른다(Thorisdottir, Jost & Kay, 2009). 여기에는 가족, 제도, 조직과 같이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뿐 아니라,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분명하게 지각된 규칙이나 규범이 포함된다.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을 제공한다는 면에서(Tedin, 1987), 사회적 시스템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를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하나의 실체로 지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을 적응적으로 영위하는데 유용하게 작동한다. 체제정당화 이론가들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체제에 의존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 대해 강력한 심리적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한다(Blasi & Jost, 2006). 때문에 자신이 포섭되어 있는 체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및 불안정성 등에 대한 정보에 직면할 때 실존적, 인식론적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체제정당화 동기는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고 본다(Kay, Gaucher, Napier, Callan & Laurin, 2008; Jost & Hunyaday, 2005). 현재 자신이 의존해 있는 체제를 유지, 방어, 정당화 하는 동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며, 이러한 동기는 숙고적인 사고나 의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Zhu, Kay & Eibach, 2013; Kay et al., 2009)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체제정당화와 관련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제정당화는 정치적 보수주의, 외집단 고정관념, 정치 참여 행동 등의 변인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Jost & Troon, 2012). 그러나 체제정당화 연구자들은 체제정당화 경향과 이러한 결과변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규명하기 보다는, 체제정당화 경향성을 유발하는 상황적 조건을 밝히는 것

에 관심을 가져 왔다(Thorisdottir et al., 2009).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사회 시스템에 의존되어 있다고 느낄 때,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거나, 시스템이 변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체제를 위협하는 정보에 노출 될 때 기존의 체제를 방어하고 정당화 하는 체제정당화 편향을 보인다(Jost & Hunyady, 2005; Jost & Troon, 2012). 또한 최근에는 인지적 자원이 불충분할 때 체제정당화 경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Laurin, Gaucher & Kay, 2013).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현 상황을 정당화할까? 이론가들은 체제에 대한 정당화가 이데올로기, 제도, 권위의 적법성에 대한 직접적 지지, 시스템의 문제나 단점의 거부와 최소화, 고정관념 합리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Jost & Troon, 2012). 가령 체제 내에서 유리한 집단과 불리한 집단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유리한 집단의 구성원이 불리한 집단의 구성원 보다 더 유능하고 부지런하다.’고 판단함으로써(Jost & Hunyady, 2002), 또 ‘평등의 착각’을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을 지지함으로써(Kay & Jost, 2003) 현재의 위계질서를 수용하고 영속시킨다. 실험설계에 기반한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체제정당화를 조절하는 다양한 변인을 기준으로 실험조건을 구성하여,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 제도, 권위 등의 체제를 지지하는 정도를 비교했는데, 대체로 미국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공정한 시장 이데올로기, 경제 체제정당화,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등이 변인으로 다루어 졌다(Jost & Hunyady, 2002; Jost, Pelham, Sheldon & Sullivan, 2003; Jost, Blount, Pfeffer, & Hunyady, 2003; Jost & Thompson, 2000; Jost & Hunyady, 2005; Jost & Troon, 2012). 이러한 실험연구의 결과들은 대부분 미국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제도에 대한 높은 지지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리한 조건의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현재 상황에 대한 주관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설명을 한

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왜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행동에 노력을 기울일까?’라는 질문에 체제정당화이론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가? 개인 내적인 불일치를 설명하는 여타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비해, 체제정당화 이론은 사회 체제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애착과 이를 유지하고 방어하려는 동기를 가정한다는 면에서 질문에 대한 보다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체제정당화 이론의 설명을 국내의 헬조선 현상에 적용하는 데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실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체제정당화 이론은 인지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처치 조건이나, 개인차 변인으로서 기존 체제에 대한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당화 경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즉 체제정당화의 선행 조건으로서 지배이데올로기나 기존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지식은 한국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체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에 저항하기 보다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둘째, 기존의 체제정당화 실험의 패러다임이나 측정 도구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여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 앞서 기술했듯 대부분 미국사회에서 진행된 체제정당화 연구들은 미국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측정 개념으로 삼고 있다. 한 문화의 지배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는 일종의 암묵적 인지체계로서 개인의 판단과 행동 과정에 반영되며, 그 내용은 각 국가의 문화적 역사에 기초한다(Banaji, 2001;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 미국의 체제정당화 이론가들은 고유한 특징이 있는 미국의 역사적 맥락과 미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정한 암묵적 신념에 대해, 학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되고 축적된 논의에 근거하여 프로테스탄트 노동윤리, 능력주의 이데올로기 등의 주요

변인을 도출하고, 이를 체제정당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삼았다.<sup>1)</sup> 대부분의 국가정체성들이 혈통, 역사, 언어, 관습, 종교에 기초한 반면, 미국의 정체성은 공유된 가치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Uhlmann et al., 2009) 이러한 접근이 보다 쉽게 가능했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은 현재까지 출판된 대부분의 체제정당화 이론의 실증적 연구들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sup>2)</sup>.

기존 사회심리학 이론의 설명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개인의 행동이 불일치 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심리적 현상을 탐색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암묵적 신념 체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다.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나 암묵적 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의 체제정당화 패러다임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이상적 기대와 현실간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개인이 부조화를 해결하는 심리적 과정과 그 결과를 탐색하는 것을 연구 문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질문은 한국인들이 심리적 불일치를 지각하는 사회적 경험의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이다. 이를 위해, 1) 한국 청년들이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구체적 영역은 무엇인가?, 2)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경험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표상은 무엇인가?, 3)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하며 그 심리적 결과는 무엇인가?, 4) 개인의 경험, 사회시스템에 대한 표상, 이의 심리적 결과는 각각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를 질적 분석을 통해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초기 한국인을 그 대상으로 한다. 사회에 대한 이상적 기대와 현실 간 불일치의 주관적 경험은 나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개인의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본 연구가 헬조선 담론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불일치 현상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청년 세대에 국한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단 헬조선과 관련된 다양한 주장들이 청년 세대의 어려운 취업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취업을 결정하는 시기에 사회 제도에 대한 탐색과 경험이 보다 다양하게 확장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미 취업을 한 상태이거나 취업 준비 경험이 있는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또한 한국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와 해결과정을 현상적 차원에서 탐색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성별, 연령, 직업상태 및 직업 등에 있어 다양한 대상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대상자의 섭외를 위해

- 1) 미국 문화의 많은 고유한 특징은 청교도와 개신교의 유산에서 유래하며, 이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암묵적이고 자동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발현한다. 종교적 가치관에 기반하여 개인의 능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 경제적 부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매우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신념이 공존한다는 점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미국적인문화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hlmann, Poehlman, & Bargh(2009) 참고
- 2) 미국 이외에서 이루어진 체제정당화의 실증 연구들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김현정, 박상희, 2015) 이외에 폴란드(Cichoń et al., 2015), 스웨덴(Jylhä & Akrami, 2015), 중국(Tan, Liu, Huang, Zheng, & Liang, 2016) 등지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해당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사회와 제도에 대한 정당성 인식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한다. “대체로 우리 사회는 공평한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물질적 부와 행복을 얻을 기회를 갖고 있다.” 등의 문항이 사용된다.

표 1. 질적 연구 참여자

ID	성별	연령	직업상태	주관적 경제수준
1	남	27	전문직(자동차)	중-상
2	여	27	무직/기타	중-상
3	남	28	학생(박사과정)	중
4	여	28	전문직(IT)	중
5	여	30	무직/기타	중
6	남	26	학생	중-하
7	여	27	무직/기타	중
8	남	31	사무직	중-하
9	남	29	사무직(공무원)	중
10	남	30	사무직 (재무)	중-하
11	남	30	사무직 (유통)	중-하
12	여	29	전문직 (컨설팅)	중-하
13	남	33	전문직(IT)	중
14	남	26	학생	중
15	남	26	학생	중-하
16	남	27	사무직	중-하
17	남	25	학생	중-하
18	남	28	학생	중-하
19	여	29	전문직(디자인)	중
20	여	26	전문직(노무사)	중-하

여 연구자의 지인 및 지인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상자 모집을 홍보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터뷰 참여를 자발적으로 희망한 20명의 성인을 인터뷰 대상으로 확보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1세였으며 남성이 13명, 여성이 7명이었다. 그 중 11명이 취업상태에 있었고, 6명이 학생, 3명이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표 1 참고). 인터뷰 참가자에게는 한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

자료의 수집과 분석은 근거이론 방법론의 주요 논리와 과정을 따랐다. 근거이론 방법은 기존 질적 연구 전통에서 벗어나 양적 연구와 유사하게 ‘이론’을 연구 산출물로 수용하는 질적 연구 기법이다(권향원, 2016). 이론을 매개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장벽을 완화하고 다양한 혼합 설계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적 바탕을 제공하기 때문에(Cresswell & Clark, 2007), 기존의 심리학 이론과의 연계성을 살펴보는데 유용한 방법론이라고 판단하였다. 근거이론은 현실에 기반 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도출하는 것, 토착화된 이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 기반 한 상향식(bottom-up) 방식의 내생적 이론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권향원, 최도림, 2011).

국내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근거이론 연구들은 Strauss와 Corbin(1998)의 분석틀에 기초하고 있다(이동성, 김영천, 2012). 이들의 분석틀은 연구자들에게 비교적 분명하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공하는데, 뚜렷한 중심 현상을 중심으로 그 현상의 발생 원인과 맥락, 결과 등의 인과적 과정을 밝히는데 중점을 둔다. 그러나 Strauss와 함께 근거이론을 주창한 것으로 알려진 Glaser는 이들의 구조화된 분석 틀이 개념적으로 강제된 서술을 생산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근거이론의 핵심 원리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이론의 출현을 침해한다고 비판한다(Glaser, 1992). 특히 Strauss는 시간적 순서, 상황이나 맥락에 따른 변화를 설명하는 ‘과정’이 근거이론 구성의 핵심이라고 본 반면, Glaser는 과정은 현상을 설명하는 방법들 중 하나일 뿐, 모든 근거이론이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론의 출현이란 어떤 틀을 적용하는 것 보다 연구하려는 현상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이며, 근거이론 연구자들 각자가 연구 목적에 맞는 고유한 이론적 틀을 개발하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인숙, 장혜경, 2014).

본 연구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적 경험의 불일치 현상의 내용적 다양성과, 이와 관련한 심리적 과정을 동시에 탐색하고 그 과정에 기저한 심리적 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때문에 변화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Strauss와 Corbin의 구조적인 분석틀을 취하기보다는, Glaser의 관점과 방법을 취하는 것이 본 연구에 보다 적합하다고 보았다. 단 Glaser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에서 취약한 면이 있으므로, Strauss와 Corbin의 코딩 방식을 부분적으로 취하되 Glaser가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의 원리에 따라 본 연구 문제에 적합한 모형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료의 수집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생각을 묻는 일대일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보하였다. 인터뷰는 평균적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자료의 수집은 2016년 9월 초부터 10월 초 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의 내용과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한 후 참여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참여 결정 철회의 권리에 대해서도 미리 고지하였다. 심층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인터뷰 과정에서 큰 범주의 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최대한 기술하도록 유도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기술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상황적 판단에 따른 질문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인터뷰의 전 과정은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통해 녹음되었으며, 인터뷰 종료 후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작성된 녹취록이 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는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 혹은 그러한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사건과 이와 관련된 심리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경험하는 사건의 맥락이 상이할 것을 감안하여 두 단계에 걸친 면담 전략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 혹은 이슈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삶이나 사회의 모습과 실제의 삶 혹은 현실 사회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거나 자각하게 된 계기나 사건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구체적인 이슈를 잘 떠올리지 못하는 피면담자의 경우, 이슈를 떠올리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분야의 주요 사회 이슈의 예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보고한 주요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우선 자율적인 회상을 하게 한 후, 그 다음 단계에서 해당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실시하였는데, 사건에 대한 기억, 그 당시의 감정과 느낌, 사건에 대한 현재적 평가, 사건에 기대했던 바람직한 상태 등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그 경험에서 스스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사건 이후에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가 변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질문하였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과정에는 심리학 박사 1인과 박사 과정생 3인을 포함한 네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다.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의 분석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네 명의 연구자가 각각 수집된 인터뷰 자료를 읽고, 연구 목표에 부합하거나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문들을 발췌하고, 자료를 통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메모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네 명의 연구자가 발췌한 진술문과 메모를 공유하고, 자료를 기반으로 개념과 범주를 도출한 후 이의 속성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개념과 범주의 명명 과정에서 연구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진술이나 개념의 경우에는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하여 해석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는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개념과 범주의 비교 과정을 통해 개념과 개념, 개념과 범주, 범주와 범주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이론적 틀을 포화, 통합시키기 위하여 개념과 범주를 보다 많은 자료와 비교하는 지속적 비교방법을 실시하였다. 이는 두 가지 원천의 자료에 근거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재검토하는 것을 통해, 두 번째는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문헌들의 설명과 비교하는 것을 통해 도출된 개념, 범주,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정교화 하였다.

## 결 과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한 개념들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재구성되었다. 먼저 성인 초기 한국인들이 삶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지각하는 경험의 목록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들 경험 및 귀인에 대한 주관적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을 알아보았다. 나아가 경험 및 사회에 대한 인식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지 및 정서적 결과와 행동적 결과를 살펴보았다.

### 의미 불일치 경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지각하는 경험의 목록을 질적 분석 과정에 따라 재구성한 결과, 이는 ‘자기가치감 상실’,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 ‘현실 사회에 대한 실망’의 세 가지 맥락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표 2). 수집된 경험들은 연구 참여자들이 해당 상황에 부여한 의미가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반적 의미 체계를 위협하거나 불일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범주의 명칭을 ‘의미 불일치 경험’으로 명명하였다.

### 자기가치감 상실

연구 참여자들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지각

하는 첫 번째 범주는 ‘자기가치감 상실’로, 네 가지 상황이 자기가치감 상실의 주요 맥락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방향 설정과 중요한 결정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에도, 주변의 지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왈가왈부 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들을 보고했다(사례 11). 특히 자신의 선택이 또래의 일반적인 선택이 아닐 때 그러한 경험을 확률이 높았다.

두 번째는 자신이 과거 경험이 존중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험은 대부분 취업 맥락에서 보고되었다. 참여자들은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의 경험과 재능, 강점과 자격들이 취업 시장에서 쓸모가 없이 느껴진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이전에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던 경험들을 평가 절하하게 만들거나,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였다(사례 7, 12).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를 자각할 때이다(사례 7, 10 외 다수). 이러한 경험은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났지만, 특히 학점, 취업, 보수 등과 같이 명시적 성과와 보상이 존재하는 평가적 맥락에서 두드러졌다.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이나 이슈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나타났다.

###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

두 번째 의미 불일치 경험의 맥락은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취업 준비 과정 및 직업 활동 과정에서 개인적 목표의 달성 및 자아실현의 좌절을 경험할 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참여자는 취업 준비 단계에서 좁아진 선택지를 마주하게 된 경험을 보고했다. 한 연구 참여자(사례 12)는 회사원을 한 번도 꿈으로 가져 보지 않았지만 자신의 유사한 배경의 또래 집단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자신

표 2. 의미 불일치 경험

범주	개념	진술문
자기 가치감 상실	개인적 선택의 존중 부재	• 취업을 미루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나에게 ‘너 자유롭게 산다.’고 말하는 걸 들으면 나를 대륙 없는 애로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11)
	개인적 경험의 존중 부재	• 내가 쌓아온 스펙과 사회가 원하는 스펙이 다르다. 나는 나름 의미있는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들은 쓸모가 없다. (7) •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회사가 매력적으로 여길 만한 것이 아니구나..전공, 나이, 성별 등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문제가 되었다. (12)
	불공정한 대우	•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데 돈을 더 적게 받는다.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다. (10)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	의무가 된 선택들	• 회사를 한 번도 꿈으로 가져 본 적이 없지만, 대학교 3학년이 되니 그것을 목표로 가져야 하는구나, 남들처럼 나도 해야 하는구나 하는 부담감이 찾아왔다. (12)
	끝나지 않는 준비기간	• 대학 입시와 취준 기간은 성취가 없는 준비의 시간, 0의 시간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남들과 같은 삶인데, 그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하는 노력의 수준이 점점 커진다. (6) • 많은 사람들이 꿈을 좇지만, 꿈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없고, 꿈을 좇을수록 멀어진다. (7)
	자기실현이 불가능한 직장	• 하루 하루 발전하는 걸 느끼고 싶은데, 그러기 힘들다. (6) • 일에서 나를 실현하는 기분은 아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 가면 할 수 있을 것이다. (8)
	좋은 직장에 대한 기대와 현실	• 회사생활을 좀 하다 보니, 100% 조직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6)
	직무에 대한 기대와 현실	• 전문가격증을 가진 전문직이지만, 회사 시스템 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업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20) • 마케팅을 하고 싶었지만 막상 인턴을 해보니 진짜 지옥이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싶었지만, 그걸 하는 사람들을 보니 자본밖에 답이 없더라. 목표가 사라지니 무력감이 들었다. (11)
	현실과의 타협	•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그럴 듯한 직업에 도전해 일단 성공했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하다. (17) •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을 때는 심리적 동요가 없었지만, 경제적 압박을 받기 시작하니 우울했다. 더 이상 취업을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15) • 기자가 되고 싶었지만 가난한 기자는 되기 싫었다. 배부른 기자가 되면 내 신념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고민 끝에 타협안으로 지금의 직업(노무사)를 선택했다. (20)
현실 사회에 대한 실망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 상실	•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신념대로 행동하면 (나를 개방하거나 착하게 행동하는 것) 사회에서 오히려 나쁜 결과로 돌아왔다. (19) • 사장들은 내게 요구할 때는 인간적이기를 원하면서, 내가 요구해야 할 때는 계약을 들이민다. (17) • 엄마 아빠 세대라고 해서 다 나를 아들처럼 대하는 것은 아니더라. (18)
	이상적 사회에 대한 기대 상실	• 책으로 보면 사회는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느꼈다. (18) • 평등이라는 것은 이데아일 뿐이라는 생각을 한다. 추구하기는 하지만 존재하지는 않는 것. 평등은 상대적인 것이다. (17)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경험	• 내가 직접적으로 부당한 경험을 당한 적은 없는데,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해 보면 부당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3)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내 경험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실력보다는 인맥이 중요하구나. 그런 것들이 불공정하다고 느꼈다. (7)
	비도덕적 사건들	• 일에서는 공정한 사람이 술자리에서 성차별적, 지역 차별적 언행을 하는 걸 보며 실망했다. (16)

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보고하였다. 더구나 좁아지는 취업 시장은 청년 세대들로 하여금 꿈과 이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직장을 추구하게 만들었다(사례 7, 8).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은 청년 세대로 하여금 취업 준비 기간을 끊임없이 연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준비나 노력이 뚜렷한 결과나 성취로 나타나지 않는 현재의 상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긴다.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연구 참여자(사례 6)는 자신이 원하는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닌 평범하게 잘 사는 것인데, 그 평범함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해도 상황이 꼭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다. 직장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직장이나 직무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가 직장 생활을 통해 성취되지 못하거나, 기대 자체가 변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다수의 참여자들은 직장 혹은 직업을 통해 자기를 실현하거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인식하였으며, 개인의 성장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직장 생활을 경험한 경우는 드물었다. 복수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조직 생활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일로 자아실현을 하기 보다는 일 이외의 영역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경험을 추구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사례 6, 8, 16). 특정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도 막상 일을 시작하고 나면 자신이 목표로 하던 직무에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차이를 경험했음을 보고했다.

#### 현실 사회에 대한 실망

한편 참여자들은 사회와 인간관계에 대한 일반적 기대를 침해하는 경험에 대해서도 보고하였다. 응답자들은 사람과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 평등하거나 평화롭거나 시스템이 잘 갖추

어져 있는 이상적 사회에 대한 신념, 자신이 올바르게 믿어온 도덕을 침해하는 사람, 사건, 상황 인식 등을 마주할 때, 자신이 가진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자각했다. 보고된 대부분의 경험은 개인이 가진 바람직성의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간의 괴리를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진술들에 기초하여 세 번째 범주를 ‘현실 사회에 대한 실망’으로 명명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진 이상적 기대를 침해하는 경험을 할 때, 초기에는 크게 실망하거나, 분노했음을 보고했지만, 이러한 경험이 반복됨에 따라 지금은 대체로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실 사회에 실망하는 경험들이 누적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자신의 생각만큼 바람직한 곳은 아니라는 이해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참여자가 다수 존재했다(사례 17, 18 외 다수).

####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영역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불일치 경험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알아보았다. 진술문 분석을 통해 도출된 21개의 개념이 7개의 소범주로 범주화 되었으며 이는 다시 ‘정답 사회’, ‘불신 사회’, ‘스트레스 사회’의 세 가지 표상으로 범주화 되었다(표 3).

#### 정답 사회

의미 불일치 경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인터뷰 참여자들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일반적인·평범한·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사회적으로도 그것이 강요되는 사회이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 경로의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압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경험이 존중되지 않는 불일치 경험의 맥락으로 작동한다(사례

표 3.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대범주	소범주	개념	진술문
정답사회	다양성 부재	평범한 삶의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기가 되면 다 남들 하는 것 하고, 정해진 테크를 따라서 끌려가는 것 같다. (11)</li> <li>• 우리나라는 나이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되면, 연애하라, 결혼하라 강요와 강박이 심하다. (19)</li> </ul>
		획일화된 가치의 내면화 - 경제적 가치와 능력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사회가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다 보니 다른 사회적 필요요움을 고려하지 않는다. (5)</li> <li>• 경제적 논리 외에 재능이나 하고 싶은 일들은 무시당하거나 평가절하 당하고, 아이들조차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7)</li> <li>• 학교에서 노는 아이들은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혜로운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안에서 잘못된 아이로 평가되었다. (8)</li> <li>• 획일화된 기준 때문에 취업이나 결혼 시장에서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든다. (7)</li> </ul>
		취향의 비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는 내 삶을 살수가 없다. 내 취향대로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거나 참견한다. (19)</li> </ul>
	흑백논리 (가치규정)	모난 돌의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긴 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하는 것을 안 좋아 하는 것 같다. (18)</li> <li>• 한국 사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한다. (1)</li> </ul>
		옳고 그름의 획일적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정답이 존재하는 사회 같다. 잣대가 분명한 사회. 정답이 아닌 것을 특이하고 지양할 것으로 본다. (20)</li> <li>• 정치의 세계에서는 다름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된다.(19)</li> </ul>
		낙인찍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사람들은 몰아가기를 너무 잘하고 속단 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내 색깔이 아닌데, 사람들이 색을 덧 씌웁니까봐 두렵다. (6)</li> <li>• 권력이 프레임을 만든다. "노조는 나쁜 거야." (20)</li> <li>• 사회가 프레임을 만든다. 취준생이라는 것도 일종의 프레임 (14)</li> </ul>
불신사회	제도 공정성 불신	편 가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편가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14)</li> <li>•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자꾸 편가르기를 하게 만든다. 남북갈등이 세대갈등, 지역갈등으로 모습만 바뀌어 계속 된다. (18)</li> </ul>
		그릇된 능력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안서를 잘 쓰는 것 보다, 인맥으로 사업이 더 잘 만들어 지는 것 보면서, 인맥을 갖추지 않으면 도태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li> <li>• 술 한 잔 마시면 계약이 체결 된다. (16)</li> </ul>
		공고한 불평등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득권이 아닌 개인의 영향력은 작다. (4)</li> <li>•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교육제도가 잘 안 갖추어져 있어 사회 초년생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이 많다. 기득권은 공고하고, 아래 사람들 끼리 싸우는 구조가 공고하다. (10)</li> <li>• 나의 외적인 것들로 내가 결정 되는 것이 많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20)</li> </ul>
	공적 기능 불신	정부 역량에 대한 불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유용한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 (14)</li> <li>• 저출산, 세월호 등에서 정부는 매번 똑같은 해결책만 내놓는다. (19)</li> </ul>
		국가의 국민 보호라는 신념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월호 이후 정부를 더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20)</li> <li>• 지진 등에 대한 대처에서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 (15)</li> </ul>

표 3.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 (계속)

대범주	소범주	개념	진술문
불신사회	일반적 타인불신	잘 사는 것이 목표	• 한국 사람들은 결국 더 잘 살고 싶은 것이다. 내용만 다를 뿐, 기성세대는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것을, 요즘 세대는 일단 행복하게 잘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 (18)
		사익추구	• 사회엔 기득권이 존재하고, 그들은 법을 그들 입맛에 맞추어 해석한다. (5) • 한국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건전한 토론과 이슈에 관심이 없고, 결국 자기 이익을 이야기 한다. (6)
		좁은 우리	•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범주가 좁다. 내 가족까지 생각하고,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관점이 부족하다. (18)
		사회적 책임 부재	•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은 갖고 싶은데, 책임은 별로 안지려고 한다. (19)
스트레스 사회	긴장의 지속	성공을 위한 경쟁	• 너무 성공, 경쟁을 강조하다보니 그 스트레스가 쌓여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 (7)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사회	• 한국 사람들은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계속 걱정하느라 자기 삶을 못산다. (13)
		심적, 물질적 여유부재	• 입시 끝나면 학점, 그걸 지나면 취업, 끊임없이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다. (8)
	문제의 개인화	지속적인 사회비교와 평가	• 한국 사회는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될 것 까지 평가한다. (5) • 한국인의 특성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 (7)
		불만족은 개인의 문제	•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회는 그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한다. (20) •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꼭 내가 노력하지 않아놓고 투정부리는 느낌이 들어 꺼려진다. (13)
		참고 버티는 것의 미덕	• 불합리 한 것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안정적 직장과 지위에 있다. (7) • 사회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들은 사회화가 잘 된 사람들이다. 어려운 경쟁 과정을 잘 버티는 사람들. (18)

11, 19 외 다수). 또한 한국 사회는 가치의 다양성이 간과되는 사회이다. 특히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소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을 한국 사회의 문제로 지적했다. 교육·정책·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장 최우선으로 함으로서 각 영역이 추구해야 할 본래적인 가치가 무시되거나, 가치와 관련한 논의 자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평가했다. 이는 개인을 평가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학업 성적이나 취업, 경제적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을 평가 절하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의 다면적 인성 개발을 막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사례 5, 7, 8).

한편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한국 사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조직이나 집단에서 주류의 의견과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로 사회에 적응을 잘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불합리한 것에 대한 변화를 주장한 사람보다, 불합리한 것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사례 7, 18).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다 보니 사람들이 불의에 나서지 않고 참는 것을 행동 규범으로 삼는 결과가 나타난다.

나아가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인들이 몰아가기와 프레이밍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어 평가하기에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였다(사례 14, 18, 20).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고 타인의 단편적인 행동과 의견만으로 사회적 낙인을 쉽게 찍는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더욱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을 삼가게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사례 6).

### 불신 사회

의미 불일치 경험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표상의 두 번째 범주는 ‘불신 사회’로 명명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사회적 제도의 공정성, 사회 문제에 대한 공적 해결 능력 및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구성원에 대한 불신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자각하는 경험의 맥락인 동시에, 한국 사회에 대한 낙관적 예측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

우선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제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와 특권이 대물림 되는 계급의 양극화(사례 4, 20)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적 구조가 공고해 지는 현실(사례 10)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존재했다. 또한 능력에 따른 공정한 평가 보다 인맥 활용 등의 관계주의적 성취와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고하였다(사례 7, 16).

또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복수의

참여자들이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과 같은 공적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보고하였다. 주목할 만한 진술로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 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기본적인 신념이 침해당했다는 응답을 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사례 7, 15 위 다수).

한편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타인에 대해서도 불신의 인지와 정서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인의 사익은 추구하지만 사회적 공익이나 책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인식, 즉 한국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사회

한국 사회에 대한 세 번째 표상은 ‘스트레스 사회’로 명명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가 고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사회라는 인식을 보고하였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원인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령 직업, 결혼, 출산, 노후 등에 대해 끊임 없이 걱정하고 준비하느라 현재의 자기 삶을 못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높이고, 경쟁 사회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성공을 위한 경쟁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불안과 경쟁은 점점 더 심리적, 물질적 여유를 줄이게 된다(사례 7, 8, 13). 한편 한국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굳이 평가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평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데(사례 5, 7), 이는 삶에 대한 긴장수준을 높이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한 요인으로 문제를 개인화 하는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몇몇 연구 참여자들은 불일치 경험의 진술 과정에서 조직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인식에 대해, 자신의 노력이나 성

실성의 부족 탓으로 치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사례 13, 20 외 다수). 또 다른 연구 참여자들은 문제를 개인화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문제에 대해 발언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사례 13, 20). 종합하면 사회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개인들로 하여금 문제를 내면화 하여 참고 버티는 것을 미덕으로 삼게 함으로써(사례 17, 18), 심리적으로 고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인지-정서적 결과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관련된 정서적 결과들이 도출되었다(표 4). 관련된 정서에 대한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정서적 경험은 대부분 경험 그 자체에 대한 사고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대범주를 ‘인지-정서적 결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정서 경험은 ‘정서적 둔감’, ‘기대 철회’, ‘변화 무기력’, ‘변화 불안과 회피’의 네 개의 소범주로 나누어 졌는데, 그 중 앞의 두 요인은 의미 불일치를 야기하는 경험과 관련된 사고의 결과로 나타난 정서 억제전략이고, 뒤의 두 요인은 경험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에 기반 하여 미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예기정서로 볼 수 있다.

#### 정서적 둔감

의미 불일치 경험에 대한 정서에 대해 질문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답변은 해당 경험에 대해 정서적으로 무감각 하거나 점차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사회에 대한 실망이나 불만족감을 보고하였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대응하는 심리적 반응이라기보다 만성적인 사회적 인식에 가까워 그러한 인식 자체가 정서적 각성을 야기

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불일치 경험은 대체로 개인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사건인 경우가 많았는데, 때문에 이러한 정서적 둔감화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에 대한 관찰과 개인적 경험의 누적에 기인하는 것임을 보고한 참여자들도 있었다(사례 2, 8, 19). 한편 인터뷰 참여자 중에는 사회적 사건과 개인을 분리하는 정도가 높은 사례들이 있었는데(사례 12, 13), 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 기대 철회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심리적인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이상적인 사회에 대한 기대를 철회하는 것이었다. 긍정적인 기대가 부재했거나 기대 수준이 낮았던 경험에 대해 회고한 연구 참여자들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불일치감을 느끼지도, 실망이나 불만족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경험하지도 않았다고 보고하였다(사례 14, 16). 한편 한 참여자는(사례 19) 사회 생활에 너무 실망하여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다보니 상식적인 사람만 만나도 감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즉 대상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문제 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부터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줄이는 완충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변화 무기력

의미 불일치 경험에 대해 느끼는 정서에 비하여 사회적 변화와 같은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는 비교적 뚜렷한 부정적인 예기 정서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정서는 변화에 대한 무기력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무기력 정서를 자주 보고하였다.

표 4. 인지-정서적 결과

범주	개념	진술문
정서적 둔감	불만족의 만성화	• 사회에 불만족을 느끼는 계기가 있다기보다, '서서히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다. (2)
	정서적 무감각	•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나빠졌다. 항상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거나 충격 받지 않았다. (8) • 정의롭지 않은 것이 계속 있어 와서 당연하게 느껴진다. 괴리도, 화도 느껴지지 않는다. (19)
	막연한 희망	•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13)
기대 철회	無 기대 無 실망	• 군대가 부조리 한줄 알고 갔다. 그래서 덜 괴리를 느꼈다. (16)
	無 기대 有 감동	• 사회생활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하다 보니 상식적인 사례를 보면 감동을 하게 된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하고 (19)
변화 무기력	정치적 효능감 부재	• 개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14) • 내가 정치가로 나가지 않는 이상, 정치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4)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 부재	• 조직의 미래가 바뀔 것 같지 않다. 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6) • 세상이 바뀔 것 같지만,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우리 세대에서는.... (10)
	변화의 어려움 인식	• 판을 뒤엎고자 하는 것은 도박이며 불확실성이 높다. 도박을 하고 싶지 않다. (6) • 문제적 싸이클을 바꾸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총체적 난국이어서 무엇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19)
	실패경험의 학습 / 패배감의 내면화	•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사회도 그럴 것이다. (1) • 싸우는 과정에서 익숙해져 있는 패배감. 이렇게 해도 안 바뀐다는 생각이 의견을 표출을 막는다. (10)
변화 불안과 회피	새로운 도전의 기회비용	•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 (5) • 청년 실업 문제가 청년들로 하여금 꿈과 희망을 좇기보다 안정성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16) • 다른 삶을 선택하면 도태 될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화가 나지만,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도태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8)
	사회 변화 시도가 야기하는 불이익	• 의인들은 결국 희생이 된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많은데, 결국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 (20) • 사회에 목소리를 내기위해 걸어야 할 것은 많은데,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15)

무기력감을 야기하는 첫 번째 요인은 변화에 대한 참여 효능감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으로서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며, 자신의 참여가 사회정치적 변화에 영향력이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무기력감을 보고



하였다(사례 4, 14 외 다수).

두 번째 요인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몇몇 참여자들은 일반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 가능성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이는 무기력감으로 이어졌다(사례 10, 16 외 다수).

세 번째 요인은 사회적 변화의 어려움을 인식 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개인의 변화에 비해 사회의 변화는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 하는 것은 어떤 식의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은 싸움이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사례 6, 19 외 다수).

마지막으로, 누적된 실패 경험은 무기력감을 내면화 한다. 변화 실패 경험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부터 투표과정, 넓은 범위에 사회적 이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범위와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에 대해 여러 번 문제 제기 했으나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던 경험(사례 1),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후보자가 낙선하는 경험(사례 7) 등이 누적되면 그 과정에서 패배감이 익숙해진다(사례 10).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은, 사회적 변화를 위한 문제 제기 및 운동 참여에 대한 노력을 막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 변화 불안과 회피

미래에 대한 예측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정서 경험은 변화 시도에 대한 불안감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나이가 들어 새로운 종류의 일에 도전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매우 큰 도전이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기회비용을 미리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하고자,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선택하는 한편 변화를 시도 하는 것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사례 2,

5, 8, 16).

한편 참여자들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안 정서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몇몇 참여자들은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 및 사회 운동의 참여가 기대할 수 있는 이득에 비해 손실이 더 크거나 확실한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사례 15, 20). 특히 한 참여자(사례 20)의 경우, 사회적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거나 사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변화를 성취하기보다 사회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였고, 이러한 관찰이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언급하였다.

#### 행동적 결과

마지막 영역에서는 의미 불일치 경험과 관련된 행동적 결과를 분석하였다. 의미 불일치 경험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그리고 경험과 미래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인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은 크게 개인적 결과와 사회적 결과로 나눌 수 있었다.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분명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로 인한 의미 불일치 경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변화에 대해 무기력감과 불안을 보고한 연구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한에서 개인적 행동 전략을 구사했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는 능동적인 통제감 추구 행동이 나타났지만,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변화 행동에 대한 시도와 참여를 회피하고 이를 정당화 하는 수동적 행동 반응이 주로 보고되었다.

#### 개인적: 통제감 추구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위한 행동에 참여하기보다, 자신이 처한 현실 내에서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겼다. 사회적 변화가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을 보고했던 다수의 참여자들은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가장 적응적

표 5. 행동적 결과

범주	개념	진술문
개인적: 통제감 추구	개인적 의미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처한 현실이 못마땅하지만, 못마땅한 현실 속에서 혼자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8)</li> <li>• 일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은 포기했다. 노동의 즐거움 보다는 노동을 끝내고 나서 즐거움을 찾겠다. (15)</li> </ul>
	현실에 순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자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적응 하는 것이 현명하다. (1)</li> <li>• 개인적인 변화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 (6)</li> </ul>
	소극적 사회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상은 변하기 힘들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미 있는 행동. 지구에 피해주는 삶을 살지 말자. (19)</li> </ul>
사회적: 변화 회피와 정당화	개인적 여유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에게 미안하지만, 내 머리도 아픈데 그것 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13)</li> <li>• 내가 힘들고 지치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하게 된다. 나는 환경운동가나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에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19)</li> </ul>
	자격 및 역량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내가 위로 올라가야 한다. 주류에 있어야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준다. (6)</li> <li>•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삶에 대해 자신이 없다. 노력보다는 역량이 될지 모르겠다. 참여를 하려면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자신이 없다. (12)</li> </ul>

인 삶의 전략임을 보고하였다(사례 1, 6 외 다수). 그러나 의식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현실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되 개인적 의미 추구를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전략을 보이기도 하였다(사례 8, 15 외 다수). 일부 참여자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변화 추구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이나 당면한 문제에서라기보다, 공유된 사회적 이슈나 캠페인에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자신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소극적인 사회적 참여의 경향을 보였다(사례 19).

**사회적: 변화 회피와 정당화**

앞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변화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이에 따라 사회적 변화에 참여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비행동의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사회적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주도적으로 사회적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보고 하였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보였다.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개인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직장인 등 직업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의 인터뷰 참여자가 자신의 삶 이외에 다른 것을 함께 생각할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사례 13, 19 외 다수).

주도적 참여를 꺼리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운동에 나서기에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사회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나 역량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사회 운동에 참여하려면 목소리를 낼 만큼 사회 및 정치적 이슈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데, 지금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의견과(사례

5, 12), 자신의 의견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문성이나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사례 6). 이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결과에 대한 성취 없이 사회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는 경우 오히려 개인의 노력 부족에 대한 합리화로 여겨진다는 앞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체제정당화 현상의 내용과 그 심리적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성인초기 한국인 2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게 하는 경험을 회고하게 하고 해당 경험에 대한 생각, 정서, 귀인 및 결과 행동 등을 물어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그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초기 한국인들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지각하는 경험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기가치감 상실’, ‘삶의 목표에 대한 좌절’, ‘현실 사회에 대한 실망’ 등 개인의 의미체계를 이루는 측면(Martela & Steger, 2016)에 대한 침해 경험이 주로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이 자신의 선택과 경험을 존중하지 않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함으로서 자기가치감을 위협받을 때, 직업적 목표 추구나 달성이 좌절되거나 지연될 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가 무너지는 현실 인식을 할 때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지각하는 경험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의미 불일치 경험은 특정한 사건의 형태로 나타나기 보다는, 학업이나 직업적 일상 속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직간접적 경험과 그로인한 인식과 정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의미 불일치 경험에서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표상은 ‘정답 사회’, ‘불신 사회’, ‘스트레스 사회’의 세 가지 모습으로 범주화 되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은 개인의 의미 불일치 경험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의미 불일치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거나 강화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경험을 해석하는 틀로 작용한다. 가령 가치와 의견의 다양성을 배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사회라는 인식은 성인초기 개인들이 자기가치감을 상실하는 경험들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다. 또한 사회 제도와 타인에 대한 신뢰의 부재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불확실과 불안을 야기함으로써 개인의 목표 달성이나 자아실현을 위협하는 맥락으로 작동한다. 역으로 목표를 향한 끝까지 않는 준비와 기대 했던 목표를 달성한 후의 무력감은 지속적으로 삶의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배경으로 작동한다. 나아가 실패를 개인화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긴장 속의 개인들을 위협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셋째, 개인의 경험과 한국 사회에 대한 표상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주요한 심리적 결과는 의미 불일치 경험에 대한 정서 조절과 변화에 대한 부정 정서 및 이에 기인하는 체제정당화 행동 및 사고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 불일치 경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억제하는 등의 조절 전략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의미 불일치 경험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었다. 때문에 몇몇 참여자들은 사회에 대한 이상적인 기대를 철회하거나 그 수준을 낮추는 방식으로 현실과 이상의 불일치를 줄이는 정서 조절 전략을 보였다. 또한 이미 발생한 의미 불일치 경험에 대해서는 정서적 무감각, 부정 정서의 만성화 등 정서적 둔감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불안과 무기력감과 같이 뚜렷한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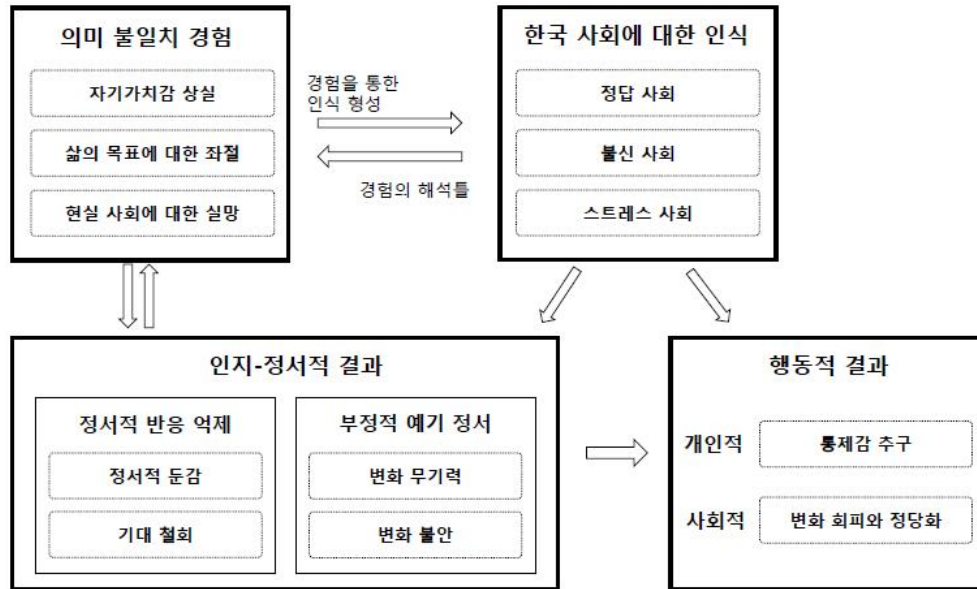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청년세대의 의미 불일치 경험과 인지, 정서, 행동적 결과

적 예기정서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정서는 시스템에 저항하는 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입을 억제하고,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 개인적 통제감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 자체가 정당하다고 여기기보다는, 시스템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회피하거나, 변화의 주도성을 회피하는 스스로에 대한 정당화 구실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 체제정당화 이론과의 연관성

질적 접근을 통하여 한국 청년 세대의 의미 불일치 경험과 그 해결과정을 살펴본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 부분 체제정당화 이론의 예측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개인들은 불일치를 야기하는 한국 사회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변하기 힘들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고, 시스템을 바꾸려는 변화 시도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문제가 있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면서 그 속에서 개인적 통제감을 확보하는 것이 개인수준에서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체제정당화 이론의 기본적 가정 및 주요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 Jost 등(2012)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회 시스템에 의존해 있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거나 변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 체제를 방어, 지지, 정당화 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았다(Jost & Banaji, 1994). 또한 긴장의 지속과 실패의 개인화 등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통제감 확보를 넘어선 사회적 참여와 관심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언급은, 충분한 인지적 자원을 확보할 수 없을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체제정당화 편향이 두드러진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Laurin et al., 2013)와 일맥상통한다.

기존의 체제정당화 이론의 연구들과 본 연구의 발견점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체제정당화 동기의 도구적 해결방식에 관련된 것이다. 체제

정당화 동기는 정당화될 수 없고, 불공정하며, 안정적이지 않은 사회적 시스템으로부터 부과된 실존적, 인식론적 위협으로부터 대처하는 것을 돕는 심리적 적응 메커니즘이다(Kay et al., 2008). 체제정당화 이론가들은 이 동기는 보편적이지만, 동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데올로기·제도·권위의 적법성에 대한 직접적 지지, 시스템의 문제나 단점의 거부와 최소화, 합리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Jost & Toorn, 2012). 그러나 실험연구에 기반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데올로기 지지, 제도 및 권위의 적법성이나 공정성 등에 대한 태도 척도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 지지를 체제정당화의 조작적 정의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와 우호적 태도의 증가가 체제정당화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지표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의미 불일치를 야기하는 현재의 한국 사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정당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행동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변화를 위한 시도 대신에 시스템의 유지를 바라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정당화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즉 불일치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지하거나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벗어날 수 없는 불일치 상황 속에 자신 자신을 정당화 하는 구실을 찾는 합리화가 나타나거나 기대를 철회하거나 정서를 억제하는 등의 정서조절의 방식으로 체제정당화 반응이 나타난 것이다.

#### 체제정당화 동기 메커니즘으로서의 정서조절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체제정당화의 중심적 현상 중 하나는 체제로부터 발생하는 부정적 정서의 조절과 관련된 문제이다.<sup>3)</sup>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해당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그것이 바뀌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둔감화나 기대철회 등의 정서적인 조절 전략을 통해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로부터 오는 불편감을 해소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적 저항에 대한 의지와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비활동의 양상은 이러한 정서적 조절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체제에 대한 직접적 지지와 같은 인지적 전략 뿐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 조절이 체제정당화 동기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적 메커니즘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서 조절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 조절 과정 모델(process model of emotion regulation)의 인지적 재평가 및 정서 억제 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Gross(2001)는 우리의 정서 조절 전략이 크게 예상 초점 전략과 반응 초점 전략으로 나뉜다고 제안한다. 예상초점 전략은 우리의 정서 반응 경향성이 완전히 활성화되기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잠재적으로 정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의 정서적 영향력을 바꾸기 위해 인지적 변화를 시도하는 인지적 재평가가 대표적인 예상초점 정서 조절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철회하는 것은, 이상적 기대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부터 발생하는 불편

3) 변인 중심적으로 접근한 기존의 체제정당화 연구에서는, 정서 변인을 체제정당화 경향성과 변화를 위한 집단적 행동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가정하는 경우가 많았다(Solak, Jost, Suemer & Clore, 2012; Jost et al, 2012; Owuamalam, Issmer, Zagefka, Klaffen & Wagner, 2014). 부정적인 사회적 사건과 불의는 도덕적 분노와 같은 체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초래하는데, 이는 집단적 저항 의지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체제정당화를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체제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는 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지 않게 만들거나, 현재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집합 행동에 나서게 할 수 있다(Durrheim, Jacobs & Dixon, 2014; Eibach, Wilmot & Libby, 2015; Osborne, Smith & Huo, 2012).

감, 즉 부정적 정서를 줄이는 정서적 조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서 억제 전략은, 정서 표현적 행동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된 반응 억제의 형태로 이미 발생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반응 초점 전략이다. 의미 불일치 사건에 대한 만성적인 실망과 정서적 무감각이라는 정서적 결과는 학업 및 직업 장면에서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누적되는 부정적 사건들에 기인한 정서 억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서조절 연구자들은 인지적 재평가에 비해 정서적 억제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적응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서의 억제는 부정 정서의 경험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며, 부정정서를 야기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계속적으로 정서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데 개인적 에너지를 쏟아야하기 때문이다(Gross, 2001). 뿐만 아니라 정서의 억제는 자존감, 개인적 성장, 자율성, 삶의 목적과 부적 상관을 가지며(Gross & John, 2003). 불확실성 회피(Matsumoto et al., 2008) 및 집단적 시위 참여 의사(Gross, Richards, John, 2006)와도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미 불일치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 감소가 사회 변화에 대한 참여를 회피하고 개인적 통제감을 추구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에 대한 설득력을 높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정서 조절을 위하여 사용한 인지적 재평가 전략의 내용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관계, 한국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철회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인지적 재평가는 정서의 조절을 통하여 단기적인 개인의 적응을 돕지만, 관계 및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체제정당화 과정에서 서구의 체제정당화 이론가들이 가정하는 인지적 일관성 추구 전략보다, 정서억제와 인지적 재평가 등의 정서 조절의 전략이 주요한 현상으로 도출되었다는 점은

서구와 대비되는 한국인의 문화적 심리현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성, 객관성, 합리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체계가 강조되는데 비해(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인들은 상황에 대한 판단과 결정에 있어 정(情)적이거나 정서적인 요인을 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최상진, 정태연, 2001). 또한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율성, 독립심, 목표와 신념, 만족을 중시하는 독립적 자기 개념을 발전시키는 반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을 타인과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상호 의존적 존재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독립적 자기와 상호의존적 자기는 일관성 차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 독립적 자기의 소유자들은 자기를 통합적이며 안정적인 실체로 보기 때문에 자기의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중시하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Ryan & Deci, 2000). 그러나 Suh(2002)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경우 미국인들에 비해 자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별로 큰 효과가 없었다.

정서 억제에 대한 비교 문화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미국인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정서를 억제 하는 것을 덜 어렵게 느낄 뿐 아니라, 정서의 억제가 주관적 안녕감 감소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이은경, 서은국, Chu, Kim, & Sherma, 2009). 이는 상호의존적 자기 개념이 강조되는 문화에서 개인 내적인 감정 표현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계 조화 및 집단 유지를 위해 강한 정서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억제가 사회적으로 장려된다는 비교 문화적 연구 결과(Markus & Kitayama, 1991, Wierzbicka, 1994)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비교 문화적 지식에 근거 해 볼 때, 개인주의 문화권의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들은 인지적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정서를 표출하는 것 보다 정서를 억제 하는 것이

보다 적응적인 개인적, 사회적 대처 전략 일 수 있다.

#### 사회 맥락적 접근과 질적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질적 접근을 통해 한국 청년들에게서 작동하는 체제정당화의 심리적 과정에 개입하는 구체적인 인지와 정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심리적 경향성이나, 시스템에 대한 불이나 문제를 지각할 때 체제정당화를 이끄는 조건과 심리적 메커니즘은 보편적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특정한 문화적 맥락은 그러한 불일치 해소 및 정당화의 심리적 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촉진하는 맥락으로 작동할 수 있다. 가령 ‘정답 사회’의 모습, 특히 사회와 조직, 소속 집단에 대한 문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모난 돌 배제의 현상이나, 특정 의견에 대해 낙인찍기와 편 가르기를 하는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인들로 하여금 분명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은 채 개인적 통제감을 추구하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처럼 질적 연구 접근은 변인 중심적인 양적 연구 접근에 비하여, 그 사회에서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특히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체제정당화 연구에서 주요한 방법론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체제를 정당화하려는 심리적 동기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만, 한국사회와 미국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시스템의 내용과 작동 양식이 다르므로, 체제를 정당화 하는 방식 혹은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때문에 서구사회에서 적용된 방법론을 한국사회에 그대로 옮겨와 적용하기 힘들다. 미국 사회의 정체성이나 가치관, 주요 이데올로기에 기반 한 적도가 체제정당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이

다. 그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 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를 체계화 하고, 측정 도구화 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학계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나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같은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용어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이해되거나 사용되는 맥락이 다르다면 인식이나 판단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탐색적 연구도 필요하다(예: 능력주의). 이러한 탐색적 과정에서 질적 접근을 통한 연구는 향후 이론의 발전을 위해 유용할 수 있다. 상관 연구나 실험 연구에 비해 특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질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변인 중심적 연구의 설계에 앞서 한국 사람들의 체제정당화 과정에 주요하게 작동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탐색하는 데에 질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유용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체제정당화 이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의 상호작용을 다루고자 하는 사회심리학 전반, 특히 시스템 수준을 변인으로 다루는 연구에 해당하는 논의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들이 질적 연구를 보다 폭넓게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과 선지식을 배제하는 것은 질적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이다. 그러나 인식론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자료를 체계화 하는 방식에 있어서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에서의 이론적 체계화 방식이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는 동일한 현상에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심리학적 사고와 이론을 학습한 연구자들이 현상에 접근할 때 발견되거나 체계화 될 수 있는 현상의 측면과 잠재적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미 사람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 주류 심리학에서 다루는 추상적인 개념이 한국의 문화적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측면에서도 질적인

접근을 통한 현상 탐색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회심리적 현상을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지식의 생성과 이론화를 위해서는, 현대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체적인 심리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혹은 심리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의미체계를 언어화 하는 학술적 작업이 필요하다.

####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가설적 이론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청년 세대가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불일치의 내용과 그 해결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인초기 한국인 20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삶에서 불일치를 경험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에 따라 다양했지만, 경험 맥락의 속성과 불일치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는 이론적 포화에 이르기에 충분할 정도의 공통적인 특성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도출한 개념과 범주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일반화가 가능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단 이들이 보여준 공통적 특성들은 직업 선택과 정체성 탐색이라는 청년기의 발달적 특성이 일부 반영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놓여있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코호트적 특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단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이었다는 점, 체제에 맞서 적극적인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청년이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기존의 체제정당화 이론의 예측과 유사

한 결과를 보인 불일치 경험의 인지-정서적 결과 및 행동적 결과는 청년 세대에만 국한되는 현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인 일반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과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불일치 경험의 맥락과 이의 심리적 해결 과정이 속성의 차원에서는 유사할 것이지만, 범주의 세부 항목을 구성하는 경험의 구체적인 맥락은 각 세대의 발달적, 코호트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체제정당화 동기의 도구적 해결 방식으로써 정서 조절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이것이 서구와 비교하여 한국 사회 혹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일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향후 실증적인 문화 비교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은 시도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제정당화 연구에서 정서 조절과 관련된 변인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정교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향원 (2016). 근거이론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 실천적 가이드라인과 이론적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2), 181-216
- 권향원, 최도립 (2011).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275-302.
- 김서영, 김석, 김소연, 백상현, 이만우, 이성민, 정경훈, 정지은, 홍준기 (2016). 헬조선에는 정신분석-노답 한국 사회의 증상 읽기.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애린, 임혜빈, 장한솔, 박주화, 기승연, 정유정, 김수진, 신주영, 이기형 (2016). '헬조선 현상'의 특징과 함의를 분석하기. 한국언론정보



- 학보, 80, 40-114.
- 김인숙, 장혜경 (2014). 근거이론 분석의 기초. 서울: 학지사
- 김현정, 박상희 (2015). 무관 정서의 점화가 체제 정당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3), 111-127.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 차이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조사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4(1), 75-93.
- 박권일 (2016). ‘헬조선’. 체제를 유지하는 파국론. 황해문화, 90, 73-95.
- 박순찬 (2015). 헬조선에 장도리를 던져라: 장도리의 대한민국 現在史 2014~15, 서울: 비아북.
- 소영현 (2012). 한국 사회와 청년들: ‘자기파괴적’ 체제비판 또는 배제된 자들과의 조우, 한국근대문화연구, 26, 387-416.
- 안정민 (2017). 상황에 대한 해석수준과 체제 내에서 유리한 정도가 체제정당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고양: 개마고원.
- 이동성, 김영천 (2012)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이민영 (2016). ‘헬(hell)조선’ 탈출로서의 장기여행. 비교문화연구, 22(2), 291-328.
- 이우창 (2016). 헬조선 담론의 기원. 사회와 철학, 32, 107-158.
- 이은경, 서은국, Thai Chu, Hee Jung S. Kim, David K. Sherma. (2009). 정서억제와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131-146.
- 정정훈 (2016). 헬조선의 N포 세대와 노력의 정의론. 문화과학, 86, 132-154.
- 조한혜정, 엄기호, 천주희, 최은주, 이충한, 이영룡, 양기민, 강정석, 나일등, 이규호, 하자센터, 서울연구원 (2016). 노오력의 배신-청년을 거부하는 국가 사회를 거부하는 청년. 파주: 창비
- 최상진, 정태연 (2001). 인고(忍苦)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21-38.
- 통계청 (2016). 경제활동 인구조사
- 프레스리안 (2015. 8. 6). 성난 2030 “헬조선, 죽창앞에선 모두 평등”. [인터뷰] ‘헬조선’ 사이트 운영자 “노오오오력해봐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697>
- 한겨레 (2015. 12. 13.) 1등도 사장도 불행한 사회...정책적으로 ‘행복 배분’ 필요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1657.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21657.html)
- <오늘의 유머> 게시물 (2015, 4, 27). 대한민국 OECD 1위 50관왕! ‘팩트’를 찾아보았습니다. [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3826](http://todayhumor.com/?bestofbest_203826)
- Banaji, M. R. (2001). Implicit attitudes can be measured. In H. L. Roediger, III, J. S. Nairne, I. Neath, & A. Surprenant (Eds.), *The nature of remembering: Essays in honor of Robert G. Crowder* (pp. 117-15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lasi, G., & Jost, J. T. (2006).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nd Research: Implications for Law, Legal Advocacy, and Social Justice. *California Law Review*, 94(4), 1119-1168.
- Brehm, J. W. (1966). *A theory of psychological reactance*. Oxford, England: Academic Press.
- Carver, C. S., & Scheier, M. F. (1990). Origins and function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A control-process view. *Psychological Review*, 97, 19-35.
- Carver, C. S., & Scheier, M. F. (2012).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 Cichocka, A., Winiewski, M., Bilewicz, M., Bukowski, M., & Jost, J. T. (2015). Complementary stereotyping of ethnic minorities predicts system justification in Poland. *Group Processes &*

- Intergroup Relations*, 18(6), 788-800.
- Cresswell, J. W., & Clark, V. L. P. (2007).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urrheim, K., Jacobs, N., & Dixon, J. (2014). Explaining the paradoxical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Paternalistic relations and systems justification in domestic labour in South Af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1, 150-164.
- Duval, T. S., & Wicklund, R. A. (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Eibach, R. P., Wilmot, M. O., & Libby, L. K. (2015). The system-justifying function of gratitude norm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9(7), 348-358.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laser, B. G. (1992). *Basics of grounded theory analysis: Emergence vs forcing*.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6), 1464-1480.
- Gross, J. J. (2001). Emotion regulation in adulthood: Timing is everyth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6), 214-219.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Gross, J. J., Richards, J. M., & John, O. P. (2006). Emotion regulation in everyday life. Emotion regulation in couples and families: *Pathways to dysfunction and health*, 2006, 13-35.
- Heine, S. J., Proulx, T., & Vohs, K. D. (2006). The meaning maintenance model: On the coherence of social motiv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88-110.
- Higgins, E. T. (1989). Self 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93-136.
- Higgins, E. T. (1996). Ideals, oughts, and regulatory focus: Affect and motivation from distinct pains and pleasures. In P. M. Gollwitzer & J. A. Bargh(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s to behavior* (pp. 91-114), New York, NU: The Guilford Press.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Jost, J. T., Blount, S., Pfeffer, J., & Hunyady, G. (2003). Fair market ideology: Its cognitive-motivational underpinning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25, 53-91.
- Jost, J. T., & Hunyady, O. (2002). The psychology of system justification and the palliative unction of ideolog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3, 111-153.
- Jost, J. T., & Hunyady, O. (2005).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ystem-Justifying Ideolog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5), 260-265.
- Jost, J. T., Pelham, B. W., Sheldon, O., & Surlivan, B. N. (2003). Social inequality and the reduction of ideological dissonance on behalf of the system: Evidence of enhanced system justification among the disadvantage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13-36.
- Jost, J. T., & Thompson, E. P. (2000). Group-based dominance and opposition to equality as independent predictors of self-esteem,

- ethnocentrism, and social policy attitudes among African Americans and European America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6, 209-232.
- Jost, J. T., & Toorn, J. (2012). System Justification Theory. In P.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pp. 313-343). London: Sage Publications.
- Jost, J. T., Chaikalis-Petritsis, V., Abrams, D., Sidanius, J., van der Toorn, J., & Bratt, C. (2012). Why men (and women) do and don't rebel: Effects of system justification on willingness to protes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 197-208.
- Jylhä, K. M., & Akrami, N. (2015).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nd climate change denial: The role of dominance and system justific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108-111.
- Kay, A. C., Gaucher, D., Napier, J. L., Callan, M. J., & Laurin, K. (2008). God and the Government: Testing a compensatory control mechanism for the support of external syste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 18-35.
- Kay, A. C., Gaucher, D., Peach, J. M., Friesen, J., Laurin, K., Zanna, M. P., & Spencer, S. J. (2009). Inequality, discrimination, and the power of the status que: Direct evidence for a motivation to view what is as what should b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7, 421-434.
- Kay, A. C., & Jost, J. T. (2003). Complementary justice: effects of “poor but happy” and “poor but honest” stereotype exemplars on system justification and implicit activation of the justice mo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5), 823.
- Laurin, K., Gaucher, D., & Kay, A. (2013). Stability and the justification of social inequal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4), 246-254.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tela, F., & Steger, M. F. (2016). The three meanings of meaning in life: Distinguishing coherence, purpose, and significance.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5), 531-545.
- Matsumoto, D., Yoo, S. H., Nakagawa, S., Anguas-Wong, A. M., Arriola, M., & Bauer, L. M. (2008). Culture,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4, 925-937.
- OECD (2016). *OECD Regions at a Glance 2016*. Paris: OECD Publishing.
- Osborne, D., Smith, H. J., & Huo, Y. J. (2012). More than a feeling: Discrete emotion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deprivation and reactions to workplace furlough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8(5), 628-641.
- Owuamalam, C., Issmer, C., Zagefka, H., Klaußen, M., & Wagner, U. (2014). Do members of disadvantaged groups strike back at perceived negativity towards the ingroup?: Meta stereotyping and expressions of Discontent.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4(3), 249-264.
- Park, C. L., & Folkman, S. (1997). Meaning in the context of stress and coping.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2), 115-144.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1), 54-67.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s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2), 201-228.
- Simon, L., Greenberg, J., & Brehm, J. (1995). Trivialization: The Forgotten Mode of Dissonance Redu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47-260.
- Solak, N., Jost, J. T., Suemer, N., & Clore, G. L. (2012). Rage Against the Machine: The Case for System-Level Emotions.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6(9), 674-690.
- Strauss, A.,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 Suh, E. M. (2002). Culture, identity consistenc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1378-1391.
- Tan, X., Liu, L., Huang, Z., Zheng, W., & Liang, Y. (2016). The Effects of General System Justification on Corruption Perception and Intent. *Frontiers in Psychology*, 7, 1-11.
- Tedin, K. L. (1987). Political ideology and the vote. *Research in Micro-Politics*, 2, 63-94.
- Thorisdottir, H., Jost, J. T., & Kay, A. C. (2009). On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system justification. In J. T. Jost, A. C. Kay, & H. Thorisdottir(Eds.), *Social and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system justification* (pp. 3-2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Uhlmann, E. L., Poehlman, T. A., & Bargh, J. A. (2009). American moral exceptionalism. In J. T. Jost, A. C. Kay, & H. Thorisdottir(Eds.), *Social and psychological bases of ideology and system justification* (pp. 27-5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ierzbicka, A. (2002). Australian cultural scripts-bloody revisited. *Journal of Pragmatics*, 34(9), 1167-1209.
- Zhu, L., Kay, A. C., & Eibach, R. P. (2013). A test of the flexible ideology hypothesis: System justification motives interact with ideological cueing to predict political judg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4), 755-758.

1 차원고접수 : 2017. 10. 13.

수정원고접수 : 2017. 11. 27.

최종게재결정 : 2017. 11. 27.

## System-justification For the Korean Young Generation: With Focus on the Experiences of Meaning Discrepancy and Their Psychological Consequences

Hyejeong Ahn

Jungmin Ahn

Yei-ji Seo

Taeyun Ju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ystem-justification phenomena for the Korean young generation. To this end, we conducted face to face depth-interview with 20 adults (Mage= 28.1, 13 Males, 7 Females). Drawing on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we explored interviewees's psychological discrepant experiences between ideal and real daily life, figured out their representation of social system shaped by their daily experiences, and the psychological process to resolve these psychological discrepancies. The concepts derived from coding process of grounded theory were categorized into four domains: experience of discrepancy, representation of society, emotional and behavioral results. Personal experiences causing meaning discrepancy are categorized by three perspectives: *loss of self-worth*, *frustration to life goal* and *disappointment by real life*. The three categories, which have affected these experiences of discrepancy, were extracted from the representations of Korean society such as *right answer society*, *distrust society*, and *stress society*. *Suppressing emotional response* to experience of discrepancy and *negative expecting emotion* such as anxiety, helplessness of change appeared as results of 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of personal experiences and social representations. These emotional reactions led the interviewees to seek *personal control* within existing system or to justify system *avoiding actions for social change*, even though they are critical against current social system. These reactions correspond with system justification theory and yet concrete contents of the system and operation causing such reactions represent specific context effects of Korean society. Given these findings, we argued the necessity of social-cultural and context-centered approaches to enrich the research of system-justification proposing emotion-control model as a system-justification mechanism and furthermore, discussed usefulness and necessity of qualitative study to expand research of system-justification in context of Korean society.

*Key words* : system-justification, emotion-control-model, grounded theory, qualitative study, conservative shift